

# “비싸서 외식 안 해”...“손님 없어 속탄다”

### 광창 1인분 2만원·국밥 한 그릇 1만원...‘외식비 저지출 모드’ 돌입 비싼 메뉴 피하고 기본 메뉴만 주문...식당 매출 줄어 업주들 ‘울상’

8일 정오께 찾아가 광주시 동구 충장동의 한 중화요리 전문점.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를 쳐다보는 업주 A씨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A씨는 테이블 별로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아무리 점심시간이지만 탕 수육과 깡통기 같은 ‘요리류’를 주문한 테이블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A씨가 내보인 모니터를 통해 식사 중인 7개 테이블의 주문 내역을 볼 수 있었는데, 전부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과 같은 식사류밖에 없었다. 그는 “비싼 요리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부족 줄었다”며 “짬뽕과 짜장면을 주문할 때도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가는 비싼 것보다 기본을 많이 찾는다”고 하소연했다. 경기침체 속에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자 덩달아 지역 외식업계 역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외식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이 ‘외식비 저지출 모드’에 돌입하면서 식당 매출도 줄어든다. 식당 주인들은 “손님이 없어 속이 탄다”고 입을 모으는 반면, 서민들은 “비싸서 못먹겠다”고 탄식하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2년 4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KRBI)’를 보면 올 1

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9.22포인트 떨어진 85.76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한 수치로, 최근 2년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그만큼 외식업계 경기불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업이 96.0에서 85.1로 감소했으며, 중식(90.3→ 82.1)과 패스트푸드(94.9→ 89.7), 분식(92.4→ 84.2), 치킨(86.4→ 83.1) 등 대부분 업종의 경기전망이 좋지 못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하락은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씨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피자 한 판의 평균 가격은 1만3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가 피자’로 통한다. 최근 피자 주문량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으나,

3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치즈토핑과 치즈크러스트 주문을 비롯해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는 손님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B씨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토핑을 추가하는 주문이 50%는 됐는데, 요즘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케다가 스파게티나 치즈볼 같은 사이드 메뉴를 찾는 손님은 반토막이 났다. 아무래도 물가가 오른 게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8시께 찾은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한우 급탕전문점도 한창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손님은 12개 테이블 중 한 테이블 밖에 없었다. 1인분에 2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한우급탕은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해당 업주의 설명이다. 서민들도 힘겹긴 마찬가지다. 국밥 한 그릇 1만

원 시대에 외식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보기 위해 점심시간 구내식당을 찾거나, 저렴한 식당을 찾아다니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회사원 김모(34)씨는 “직장인이 자주 먹는 생고기 비빔밥의 경우 대부분 1만2000원대다. 심지어 갈비탕은 2만원이 넘는 곳이 허다하다”며 “매달 점심값만 30만원에 육박하는 탓에 지출을 줄이고자 외식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점심 메뉴로 꼽히는 김치찌개의 광주지역 평균 가격은 지난해 7100원에서 7800원으로 9.86% 올랐고, 삼겹살 1인분은 1만3600원에서 1만4844원으로 9.1% 증가했다. 이처럼 광주의 식사 메뉴 상당수가 1년 새 10% 상당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6년 광주은행 워라밸 실현 앞장선다

### 초등교 입학 자녀 돌봄 편의 제공 올해 106명 등 534명 제도 활용 임금 등 불이익 없어 만족도 높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초등학교 입학기 직원들의 자녀 돌봄 편의를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10시 1시간 늦추는 제도다. 광주은행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실시해왔다. 올해 대상자 106명을 포함해 6년 동안 총 534명의 직원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해 원활한 자녀 보육을 이뤄왔다고 광주은행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근무 환경과 직원의 개인 사정에 따라 3-5월 중 2개월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했다.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워라밸을 갖춘 기



업문화를 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과 승진 등 불이익은 없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자녀 초

## GGM 신입 채용 경쟁률 25대 1

### 38명 선발에 941명 접수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신입사원 채용 원서접수 경쟁률이 25대 1을 기록했다. GGM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기술직 29명 일반직 9명 등 38명을 선발하는 신입사원 공채에 941명이 접수해 2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분야는 조립생산 분야로 349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분야는 생산 및 공정관리 분야로 경쟁률이 무려 103대 1에 달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 외에도 중년층과 여성 지원자도 많았다. 여성 지원자는 71명(8%)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원자도 57명(6%)이나 됐다. GGM 측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을 바탕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점에서 지원자가 많았다고 해석했다. GGM은 적정임

금을 주저지런비 등 사회적 임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밖에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 여부, 재산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배제하고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 채용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과 AI 역량 검사를 통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올해 첫 공개채용에 많은 지역 인재들이 대거 지원한 것은 GGM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전 기차 기반 시설 구축이나 생산 단계에 따라 꾸준히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차 선발 결과는 AI 역량 평가 결과와 서류 전형, 면접전형, 건강검진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사일은 4월 중순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효성티앤씨, 페트병 수거 캠페인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

### 임직원 참여 ‘리젠 되돌림’ 연 2회 실시...리젠 가방 증정

효성티앤씨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페트병을 모으는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한다. 효성티앤씨는 최근 사내 임직원이 참여하는 ‘리젠(regen) 되돌림’ 캠페인 시즌2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리젠 되돌림은 국내 사업장에 페트병 수거함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페트병을 모아온 국내 대표 리사이클 섬유인 리젠이 적용된 가방을 증정하는 캠페인(사전)이다. 상하반기 각각 한 번씩, 총 2회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해 본사 사업장에서 처음 시작해 약 9000개의 페트병을 모았고, 올해는 울산, 구미, 대구 등 전국 지방 사업장으로 확대해 1만5000개의 페트병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한 탄소저감 효과

는 약 70그루의 소나무가 1년 동안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 양과 비슷하다. 이번 캠페인에서 효성티앤씨는 리젠으로 제품을 만드는 대표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동반성장’한다. 올해는 직원들에게 나눠줄 리젠 적용 제품을 MZ세대 사이에서 친환경 패션 브랜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리츠마마’와 ‘할리케이’에서 받는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티앤씨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섬유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며 “전사 임직원이 힘을 모아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해 친환경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티앤씨는 지난 2021년에도 사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를 활용하는 ‘사무실 개인컵 사용’ 캠페인을 실시해 임직원들의 호응을 이끈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해양에너지-영광군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 협약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지난 7일 영광군과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협약 주요 내용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상호 협력 사항, 사업비 비용 결정 등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심지 외 북미공급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해양에너지와 영광군은 영광읍 4개 지역(단주리 월현마을, 월평리 월평마을, 신하리 신평마을, 녹사리 도양마을)에 총 사업비 28억6900만 원을 투자해 약 140여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는 1㎥ 1846.47원인 LPG보다 저렴한 1㎥ 926.75원으로 50% 상당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주민들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을 통해 연료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희 대표이사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미공급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 월 40만~70만원 3~6% 이율 적용...정부 월 최대 2만4000원 보조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

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

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빠진다.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1.91(-31.44)
↓ 코스닥	813.95(-1.81)
↑ 금리(국고채 3년)	3.855(+0.129)
↑ 환율(USD)	1321.40(+22.00)

##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취임

전영상(59·사진) 신임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이 1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전 상임감사위원은 행정학 박사로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활동했으며 연구논문 30여 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상임감사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위기는 곧 기회’이며, 지금 우리가 처한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한국전력의 발전과 도약,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시없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